

실업극복 국민재단 창립 3주년 축하의 말

2006-11-29 5:00PM 백범기념관

<함께 일하는 사회, 희망을 나누는 사회>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되는
화합의 장에 함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있어 일할 권리는 행복한 삶의 기본조건입니다.

일할 권리를 박탈당한다고 하는 것은

이틀 전에도 30대 실직가장이 두 어린 남매와 아내를 살해하고
투신자살한 일에서 볼 수 있듯 고통스럽고 절박한 문제입니다.

이렇듯 절망에서 허덕이는 수많은 실업 또는 실직자들에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기의 희망을 주기 위해 출범한

실업극복국민재단의 창립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주어진 3분안에 할 수 있는 말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업극복의 문제는

다변적인 사안으로서 사회 각계각층의 공동노력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재단은 국민재단으로서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하고 있는 것은 다행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사회에서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사회통합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단체들과의 보다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없는 경제성장으로 야기된 실업문제를 포함한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 현상으로
총체적인 위기상황에 직면한 오늘의 사회현실에서
우리 주변에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운동이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나라 일자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처하고 있는 경쟁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출범한
<중소기업시대포럼>

승자독식의 논리에 근거한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비롯된
경제와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고
제2의 도약을 위한, 사람이 존중되고, 사람이 경쟁력이 되는
나라발전의 패러다임 구축을 열망하는
<뉴패러다임 포럼>

사람중심의 나라, 일자리 창출, 일자리 나누기, 과로체제 해소,
평생학습, 지식근로자 양성 등을 꿈꾸며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어내고 사회적 대타협인 <사회협약>의 성사를 시도하
고 있는
<희망포럼> 등 여럿이 있습니다.

일하는 방법은 더러 다를 수 있지만 지향점이 같은
사회조직들의 공동 작업이 필요하다고 새삼 느낀 것은
중소기업시대포럼이 개최한
<대, 중소기업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방안> 모색을 위한
제3회 국민대토론회에서였습니다.

하나의 예입니다만 이 토론회의 발제자 중에는
각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있었습니다.

문제제기와 해결책 모색에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는 대목에서
법을 만들어야 하는 당사자인 여야의원 전원이 한 목소리로 호소한 것은
밖에서 결집된 힘으로 제출된 법안이 통과되도록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2006년 정기국회 마감일도 이제 3주도 남지 않은 시점인데
3000개나 되는 민생관련 법안들이 정파 간의 정쟁에 밀리고 가려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서 빚어진 현상입니다.

한 국회의원은 바쁜 일정에 쫓길 뿐만 아니라 인력부족으로
법안마련 자체가 어렵다고 하면서
각 집단이 필요로 하는 법안은 직접 만들어서 제안해 준다면
더욱 좋겠다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푸는 일에 필요한 입법화와 정책화마저도
공공기구에만 내맡겨서는 성취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처지입니다.
우리의 공동노력, 공동추진이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오늘의 실업극복 문제는 정말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입니다.
또한 범국민적으로 도모해야 한다는 것은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이를 주동적으로 이끌어갈 실업극복국민재단의
넘치는 활력을 기원하며
다시금 창립3주년을 축하합니다.